

취약계층 '커뮤니티 케어' 추진

정부가 그룹홈 등에 거주 개개인에 맞는 사회서비스 혜택 읍·면·동에 돌봄창구 설치 보건·의료·복지단체와 연계

정부가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지역 사회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를 추진하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란 시설에서 벗어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서비스 체계다.

2일 광주전남연구원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복지정책의 핵심과제로 정하고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6월 ▲돌봄 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병원, 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 등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또 돌봄이 필요한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자립정착금 급여 등 생활 지원 ▲장애인과 노숙인 등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 ▲재가 복구를 위한 중간시설 모델 마련 등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읍·면·동 단위 돌봄창구를 설치하

고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에 관한 여러 단체들을 연계함으로써 지속적인 돌봄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돌봄 창구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건소, 동네의원·약국, 복지관 등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커뮤니티 케어가 대규모 기관(병원 등) 중심에서 지역사회로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의 혁신하기 위한 출발이며 우리나라 보건 복지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을 가리키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커뮤니티 센터가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지만, 기존 주민센터의 역할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도 보는 시각도 있다. 또 각종 기관이 돌봄과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계층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기

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도 증가해 질적 향상을 끌어야 한다는 게 광주전남연구원의 설명이다.

광주전남연구원 관계자는 "커뮤니티의 관심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 돌봄 전문인력등을 실현해 장기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등은 지난달 28일 커뮤니티케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시설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이달까지 수립, 발표할 계획이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북구, 여성행복 응원 센터 설치 맞춤형 여성 정책 지원 나선다



문인 북구청장이 2일 광주시 북구 중앙동 광주 YWCA에서 여성단체 전문가 등과 맞춤형 여성정책지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북구 제공>

일자리·육아 등 종합 서비스

광주시 북구는 "여성행복 응원 센터 설치로 맞춤형 여성 정책 지원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북구에 따르면 2일 문인 북구청장은 경력 단절 맞벌이와 출산, 육아, 경력단절, 성차별 등 여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 북구 중앙동 YWCA를 찾아 여성단체 전문가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북구가 추진 중인 여성행복응원센터는 여성들의 일자리, 맞벌이와 출산·육아, 경력단절, 다문화, 미혼모 등 여성 관련 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과 종합서비스 제공을 전담할 계획이다.

북구는 건강하고 행복한 북구 여성 만들기 위한 산후우울증, 갱년기 극복 등 여성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부부 관계·부모역할 상담서비스를 통한 가족간 관계회복 및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별·마을별·아파트별로 방문해 출산·육아·맞벌이 및 맞벌이 여성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 육아고충 나눔터 등의 찾아가는 힐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북구는 김정호 추모동산 조성방안, YWCA와 유동수거터 인근 주변 도로정비 및 인도 개·보수 등 생활 불편사항 해소 방안도 논의했다.

북구 관계자는 "여성 관련 문제 해소와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밀착행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여성행복응원센터 신설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여성이 행복해야 지역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여성이 안심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책읽는부모아카데미' 10월 시작 운남어린이도서관 참가자 모집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신청



광주시 광산구 어룡동 선운 공동육아방에서 영·유아들이 대인관계를 향상 시켜주는 '밤하늘의 소중한 별이 되어보아요' 놀이를 하고 있다. <광산구자원봉사센터 제공>

광주 광산구 운남어린이도서관이 오는 10월 시작하는 '책읽는부모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한다.

2일 광산구에 따르면 '책읽는부모아카데미'는 부모가 먼저 책을 읽고, 그 영향을 자녀가 받아 평생 독서습관을 들이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회가 주최하고 북스타트코리아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운남어린이도서관을 비롯한 전국의 95개 도서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아카데미는 충북 청주시 초롱이네도서관 오혜자 관장의 오는 10월 '그림책 고르는 방법과 읽어주는 방법', 30일 '북스타트 함께 읽기의 즐거움'을 비롯해 충남 서천군 여우네도서관 김명희 관장의 17일 '행복한 육아-영유아와 어린이 놀이-노 발달', 24일 '함께 키우기의 즐거움-책 읽고 이야기 나누기'로 구성됐다.

아카데미 참가를 원하는 부모는 이달 1일부터 광산구 통합도서관홈페이지(lib.gwangsa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운남어린이도서관(062-960-8301)에서 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책 읽기를 계속한다면 아이가 책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와 유대감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자원봉사센터 '선운 공동육아방' 개소

선운 이지더원 아파트에 광산구 주민이면 무료 이용

광산구자원봉사센터가 공동 육아 공간인 선운 공동육아방 개소했다.

지난달 28일 광산구자원봉사센터가 광주시 광산구 어룡동 선운 이지더원 아파트 3단지 꿈나라도서관에서 '선운 공동육아

방' 개소식을 가졌다.

선운 공동육아방은 부모들이 저출산과 육아 문제 해결을 목표로 육아 경험·정보를 공유하고, 돌봄 품앗이를 하는 등 지역사회 안에 공동육아 체계를 구축하는 공간. 아울러 매주 금요일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신체발달놀이와 오감발달놀이도 진행되는 장이다.

공동육아 참여자와 아파트 주민 등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개소식은, 그림책과 함께하는 율동, 공간공유 협약식, 현판 제막,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 자녀를 둔 광산구 주민이면 누구나 육아방을 무료 이용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다"며 "광산구에 공동육아 공간을 꾸준히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장애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광주 500만원·전남 1000만원

광주와 전남의 장애인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자립정착금이 5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광주는 500만원을, 전남은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은 지난해 각각 15명, 10명 등 총 25명에게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광주는 31명의 시설퇴소 장애인 중 48.4%인 15명, 전남 34명 중 29.4%인 10명에게만 지급했다.

17개 시도별로 올해 장애인자립지원금을 살펴보면 서울이 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경기·전북·전남·경북

1000만원, 부산 700만원, 강원 650만원, 인천 600만원, 광주 500만원, 경남 500만원, 충북 400만원 순이었다.

대전·울산·세종·충남·제주 등의 경우 시설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정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시설퇴소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장애인자립정착금의 지원대상이 라면서도 지자체마다 재정여건이 달라 장애인자립정착금 지원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최도자 의원은 "장애인자립정착금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로 정착금을 지급 받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한정적"이라며 "지자체가 아닌 복지부 차원에서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사정상 급매

-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 38평, 사무실 전용
- ✓ 20층중 3층,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가능
- ✓ 보 1천만, 월50만원 임대보장
- ✓ 시세 - 1억 1000만원
- ✓ 급매 - 8400만원

문의. 010-6834-740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900만원
- 보성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입구 1868㎡ 첫집등록할 1억3천

주택·원룸·아파트

- 농성초건너편 월산동 소방도점 대지 129㎡ 주택 66㎡ 은행5천.1억4천
- 월산동 제일파크 5층 89㎡ 은행5300 매도 9800만원
- 월산동 농성초 건너편 소방도점 대지 149㎡ 2중주택 115㎡ 1억3천
- 서구 쌍촌동 2중 주택 땅 105㎡ 새 주택 118㎡ 운전저지부근 2억7천
- 광산구 송산동 땅 1054㎡ 집 100㎡ 전원생활적합 3억2천

투자·매도·교환

- 월산동 양면도로점 주거지 873㎡ 창고와 사무실 11억
- 무안 해제면 상업지 1036㎡ 은행 2억4천 신고 3억5천 매도 3억
- 영광 홍농읍 주거지 5223㎡ 공시지가 6700 매도 8500
- 동구 용산동 대지 등 2449㎡ 다세대·빌라·사할 등 적합 10억 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점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육적합 7억7천
- 유동 소방도 상업지 331㎡ 상가·원룸·빌라 적합 4억7천
- 금남로57억 대산증권부근 대로점 상업지 364㎡ 사육적합 16억

상가건물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월산동 소방도 코너 3층 상가주택 땅 120㎡ 건평 197㎡. 2억6천
- 산수동 소방도 코너 3층 상가주택 땅 96㎡ 건물 55㎡ 2억
- 쌍촌동 원룸, 투룸 15실과 안집(주인거주) 월세 460. 12억5천
- 용봉동 고시텔 땅 357㎡ 건평 829㎡ 45실 은행5억 교환가 9억
- 고흥 나로도인근 팬션 땅 6891㎡ 건평 267㎡ 객실10, 은행3억, 7억5천
- 여관 목포시 옥암동 땅 439㎡ 건물 989㎡ 객실26 은행 4억 매도 7천만
- 북동 토지 538㎡ 건물 1933㎡ 은행 9억2천 매도 1억 6천
- 농성초부근 2차선점 상가주택 땅 172㎡ 건평 279㎡ 4억5천
- 순천만 대대동 팬션 땅 332㎡ 객실8, 관리실, 은행3억 영업잠실 3억천
- 산수오거리 부근 땅 494㎡ 건물 1996㎡ 병의원적합 20억
- 양림동 땅 274㎡ 건물 751㎡ 요양병원합 건물과 교환가 16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